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철학적 태도 제안*

김 기 수**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1970년대에 이르러 음악교육의 철학적 관심과 연구가 크게 증대되어 심미주의와 실천주의,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철학적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음악교육에서 철학적 연구의 주요 과제는 ‘음악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탐구 과제는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음악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해 최근까지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로 작용하는 주요 철학적 관점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며, 지속적인 철학적 발전과 연구의 증진을 위한 건설적인 철학적 태도를 ‘다양한 철학적 시각과 세계관의 인정’, ‘음악교육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그리고 ‘스스로의 철학적 사유방식 습득’ 등으로 제안한다.

※ 주제어: 음악교육철학, 철학적 태도, 음악교육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음악교육의 주요 철학적 사조와 양상
 - 1. 음악교육에서 철학의 등장
 - 2. 음악교육 기초로서의 주요 철학적 사조
 - 3. 현행 음악교육철학의 양상
- III. 철학적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철학적 태도
 - 1. 다양한 철학적 시각과 세계관의 인정
 - 2. 음악교육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 3. 스스로의 철학적 사유방식 습득
- IV. 맺음말
-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17년도 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진주교육대학교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철학은 자연의 현상과 원리를 다루는 현상학과는 달리 사물의 본질이나 배후의 세계를 다루는 형이상학의 학문이다. 즉 많은 학문이 감각에 기초한 것을 다루는 반면 철학은 감각 이면의 세계 또는 본질, 곧 증명이 불가능한 세계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런 까닭에 철학은 다른 학문보다 우위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 논의가 결코 만만치 않은 학문적 영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명한 러시아 철학자 보헨스키(J. M. Bocheński)는 “철학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큰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고민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배움이다. 모든 간단한 해결책은 오답이다. 간단한 해결책은 게으른 해답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며, 현실의 진리 역시 가히 무서울 정도로 복잡하다”(p. 68)라며 철학적 논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사에서 철학은 비록 간헐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하여 철학사의 발전에서 나타난 여러 철학적 사조에서 울긋불긋한 음악교육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며 음악교육의 발전과 함께 해오고 있다.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음악교육에서 철학적 논의는 더욱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철학은 하나의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1970년 리머(B. Reimer)가 『음악교육철학』(*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을 출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미국의 음악교육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며 많은 음악교육자로 하여금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증대하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1995년 엘리엇(D. J. Elliott)이 리머의 철학을 반박하는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¹⁾을 출간하면서, 음악교육에서 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한층 고조됨과 동시에 서로가 반박하는 철학적 논쟁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서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실태는 이와 맞물리는 발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곧 1992년 제 6차 음악과교육과정에 반영된 소위 리머의 ‘심미주의’와 1997년 제 7차 음악교육과정에서 엘리엇의 철학이 반영된 소위 ‘실천주의’가 그것이다. 국가 수준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철학의 반영은 음악교육의 당위성과 함께 음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1) 현재까지 국문 번역서가 없어서 원서의 제목 그대로 제시함.

위함이었다.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철학적 내용의 제시는 현장의 교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현장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음악교육에서 철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는 음악교육학자를 비롯하여 현장의 교사 및 대학원생에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로 최근까지 음악교육에서 철학과 관련된 연구물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분명 음악교육철학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적 현상 혹은 철학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음악교육 철학적 발전 양상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미국의 음악교육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음악교육에서도 철학적 논쟁은 과한 충돌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리머의 철학과 엘리엇의 철학 간의 지나친 논쟁이라 할 것이다.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비판은 분명 필요하지만, 하나의 철학을 고수하기 위한 다른 철학을 배타하거나 부정하는 등의 비난은 분명 음악교육 철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의 철학적 태도는 짐짓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A는 B이다’ 혹은 ‘A는 맞고 B는 틀리다’라는 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곧 철학적 탐구가 ‘무엇이 참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데 너무 얽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언하건데, 이런 식의 철학적 태도에서는 분명 어떤 철학만 옳고 다른 철학은 틀리다는 식의 배타적 태도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의 사회 및 교육적 여파는 서로를 비판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비난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시대적·사회적 변화 양상을 비추어 볼 때, 현행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철학적 견해가 전체의 음악교육철학을 점유하기보다는 여러 갈래의 철학적 견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물음과 해답을 찾는 탐구의 방식 또한 ‘무엇이 참인가’라는 진리론(眞理論)적인 접근보다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의 의미론적 접근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연구의 관심과 증대를 고취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내용의 접근을 돕기 위해, 음악교육의 주요 철학적 사조와 양상을 간략히 고찰하며 철학적 연구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철학적 태도를 제안하려 한다.

II. 음악교육의 주요 철학적 사조와 양상

1. 음악교육에서 철학의 등장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등의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철학은 ‘무엇이며 진리이며 실재인가’, ‘어떻게 그 진리(true)와 실재(real)를 알아 내는가’, 그리고 ‘진리와 실재에 대한 가치(value)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이러한 의문들은 주로 형이상학(metaphysics)적, 인식론(epistemology)적, 가치론(axiology)적인 접근에 의하여 탐색된다(이홍수, 1990, pp. 28-29).

이러한 철학의 문제들이 음악교육에도 나타났다. 곧 ‘음악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음악교육을 하는가’, 그리고 ‘음악교육은 정말 가치로운가’ 등에 대한 물음이 시작된 것이다. ‘왜 음악교육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음악교육 전반에 퍼져나갔다.

음악교육에서 철학의 등장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크(M. L. Mark)는 『현대의 음악교육』(*Contemporary Music Education*)에서 철학의 등장 배경이 미국의 1960년대 사회적 혼란, 1970년대 경제적 위기, 1980년대 탁월한 교육 추진, 그리고 산업기술의 영향이 사회에 미친 문제들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배경이 음악교육자들로 하여금 교육이론과 실제에 기초가 되는 기본적 가치관을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탱글우드(Tanglewood)²⁾ 선언문인데, “예술은 인간의 역사에서 미적 전통을 계승하게 해준다. 대부분이 비언어적 성격인 음악과 미술들은 인간의 주체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데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근원들과 가까이 접해 있다”(p. 101)고 그 전

2) “탱글우드 심포지엄은 보스턴(Boston) 교향악단의 여름 훈련지인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의 탱글우드에서 1967년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미국의 전국 음악교육자협회(MENC)가 버크셔 주(Berkshire) 음악센터, Theodore Presser 재단,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의 순수 및 응용 예술대학의 협조를 받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의 목적은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의 미국 사회 속에서 음악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토론하고 정의하기 위한 것이었다”(Mark, p. 76).

문 중에 강조되고 있다.

음악교육사에서 철학적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음악의 가치에 대한 언급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은 『플루타르코스』(*Plutarchos*)에서 아동이 점점 문명화되고 균형감을 갖추며 그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음악의 리듬과 화음의 적응이 인간의 생애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데아의 이상적인 인간 성장을 위해 음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³⁾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치』(*Politica*)에서 음악은 시민교육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음악의 자유롭고 고상함이 인격 수양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중세에는 음악교육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지만, 과학, 수학, 천문학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간의 미적 경험과 성장과 관련해서는 독특한 가치로 인식되었다. 특히, 근대의 18~19세기에 이르러 루소(J. J. Rousseau)는 그의 저서 『에밀』(*Emile*)에서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을 자연성에 기초하며 음악교육 내용과 방법 등의 많은 부분을 제시하였고, 그의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치(J. H. Pestalozzi)는 실제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였다. 그 교수이론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전수되고 정리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⁴⁾ 루소와 페스탈로치의 교육원리는 음악교육의 원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의 그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며 세계의 음악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음악교육에서 음악교육철학이라는 용어의 직접적인 등장의 계기는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1930년에서 1970년대에는 예술의 중요성을 역설한 듀이(J. Dewey), 머셀(J. L. Mursell), 랭거(S. Langer), 마이어(L. B. Meyer) 등의 철학자 및 교육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업고서 리머(B. Reimer)는 1970년 『음악교육철학』(*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을 출간하였다. 여기서 그는 음악교육의 목표를 ‘음악의 심미적 경험’으로 규정하고, 음악교육의 본질이나 가치에서 심미적 음악교육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1970년대 말 미국의 음악교육은 공리주의와 심미주의 간의 철학적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공

3) “이상(理想)의 도시에는 음악이 젊은 시민들의 도덕교육에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략]... 음악적 교양이 지고(至高)의 탁월함이라는 그 주제가 곧 리듬과 화음보다 더 깊숙이 영혼 속에 파고드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Lacoste, p. 28).

4) 페스탈로치의 교육원리는 당시 미국의 교육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교육원리는 제자인 네겔리(Nageli)와 네프(Naef)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발전·확산되었다(이홍수, 1990, p. 13). 사실, 미국 음악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룩한 로웰 메이슨(L. Mason)은 유럽을 직접 방문하여 페스탈로치의 교육원리를 그의 제자에게서 전수받아 1830년대 미국 음악교육의 지침을 마련한다.

리적 접근에서는 개성과 시민성을 계발함으로써 민주 시민을 기르는 것에 음악과의 목표를 두는 반면, 심미적 접근은 음악이 인간의 내면과 미적 삶에 영향을 주도록 자극하는 것에 음악과의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립의 음악교육은 하나로 화해되거나 와해되기 보다는 각 특성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서로의 미흡한 철학적 내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으며, 서로의 철학적 논쟁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철학적 제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에서 철학의 태동과 발전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2. 음악교육 기초로서의 주요 철학적 사조

음악교육철학은 일반철학의 대상인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등을 포괄한다. 그래서 많은 음악교육학자들은 음악 그 자체의 미학적 관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까닭에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에서는 일반철학의 사유방식 뿐 아니라 철학적 대상과 범주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벨레스(H. F. Abeles)가 1984년 그의 저서 『음악교육의 기초』(*Foundation of Music Education*)에서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로 소개하는 ‘자연주의(Naturalism)’, ‘이상주의(Idealism)’, ‘실재주의(Realism)’, ‘실용주의(Pragmatism)’ 등이다.⁵⁾

우선 자연주의는 자연의 자연성을 강조하는 철학으로 루소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루소는 우리의 판단이 이성보다는 감각의 요구에 의존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서양철학자이다. ...[중략]... 우리는 이성의 필요가 감각이나 본능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우리의 삶에 들어있는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이 사적인지 공적인지를 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삶과 우리의 판단에 대한 우리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이성 대신에 감각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Magee, pp. 126-127).⁶⁾

5) 이 4가지 철학의 사조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대표적인 음악교육학 저서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1990), 『음악교육철학』(2012), 『음악교육의 기초』(2005), 『음악교육학 총론』(2010) 등에서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 만큼, 본 장에서는 위의 저서에 소개된 내용은 배제하고, 그 외의 철학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6) 이러한 관점은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 곧 예술의 존재와 위치를 새롭게 했을 뿐 아니라 예술철학의 발전을 돕는 계기가 된다. 사실, 루소의 사상은 이후의 칸트(I. Kant)

여기서 루소가 우리의 판단에서 감각적 요구를 이성보다 우위에 놓고 있는 점은 감각과 감정을 기초로 하는 음악교육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자연주의의 논지인 “모든 진리와 실재를 포함하는 자연은 소박한 감각을 통해 진실된다고 믿었다”(이홍수, 1990, pp. 29-30)라는 논의의 근거를 마련한다. 그런 만큼, 이 철학은 자연이 인간의 존재와 생명 및 세계의 실재라고 간주하고, 철학적 세계와 인식능력 및 가치를 자연의 자연성에서 찾으려는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상주의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이원론적인 성격의 철학으로, 곧 감각의 세계와 이데아(idea)⁷⁾의 세계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이데아의 어원은 ‘형상(eidos)’과 똑같으며, ‘보이는 것’,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며, 철학사 안에서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선 피타고라에 의하면, 진정한 삼각형 자체라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었고, 소크라테스에 이르러 윤리적인 혹은 미적인 가치 그 자체를 나타내게 되며, 마지막으로 플라톤에 의해서는 현실 세계를 넘어선 현실 세계의 근거로서의 ‘원형(paradeigma)’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데아에 인간의 관념이라는 의미가 주어지게 되었다(소판수평, p. 68).

곧 참된 진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하는 현상계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 파악 가능한 이데아 세계라는 것이다.⁸⁾ 그런 만큼, 이 철학은 음악이 일면의 이데아 세계를 담고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여 음악교육에 악곡, 활동,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데아적인 절대적 기준과 가치의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의 철학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루소의 『에밀』은 칸트에게 크게 감명을 줌으로써 그의 철학을 새롭게 조명하며 발전시키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7) “이데아라는 말은 오랫동안 철학사를 지배해왔던 말이다. 관념, 이념이라는 말은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벗어난 것이지만, 그것은 이데아의 현대적 표현인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데아를 세계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관념론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소판수평, p. 68).

8) “플라톤은 예술작품은 이데아를 본뜬 사물을 다시 감각적으로 모사한 것이기 때문에 몇 굵질 기만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술은 이 세계의 쉽게 변하는 사물을 매혹적으로 만들고 사물에 더 집착하게 한다. 따라서 예술은 감각 세계를 넘어서 영원하고 정신적인 실재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명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Magee, p. 29)라고 평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철학의 사조에서 이상주의를 논의하는 것은, 이성을 동반한 예술작품은 곧 이데아를 내포하고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진정한 음악작품을 이데아의 세계(형식)를 보여주고 있으며, 진정한 음악경험은 이데아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재주의는 아리스토타레스(Aristoteles)로 대표되는 일원론적인 성격의 철학으로, 이상주의와는 달리 진리는 사물에 실재한다는 철학이다.⁹⁾ 아리스토타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실재와 관련하여,

존재로서 존재라는 면이 존재(즉, 실재적인 것) 전체를 의미한다. ...[중략]... 존재로서 존재의 제 1원인들을 알아내야 한다. 분명히 한 사물은 그 자신의 원인과 동일한 것일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로서 존재에 관한 연구는 존재의 궁극적인 제 1원인에 대한 탐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전자는 탐구의 영역이나, 후자는 탐구의 결과이며 예상되었던 포상(the hoped-for prize)이다(Allan, pp. 122-123).

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곧 사물과 실재가 감각계와 이성계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철학은 진리와 인식, 그리고 가치를 음악경험이 가능한 실재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음악교육에 제공하여 음악 및 교육 그 자체에서 모범적인 기준과 가치를 찾으려는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실용주의는 듀이로 대표되는 미국철학¹⁰⁾으로 삶의 철학에 기초하고 그 범주를 자연에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의 시간성과 공간성의 지배를 받으며 변한다는 상황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지력(intelligence)으로 증명 불가능한 자연의 형이상학적 요소, 즉 생명기운과 같은 대상도 포함한다.¹¹⁾ 이 철학에서 음악

9) 플라톤은 이데아가 하나의 형상을 뜻하여 그것이 사물과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 아리스토타레스는 이데아가 각 사물마다의 형상을 제안한다. 즉 플라톤은 하나의 형상을 이데아로, 아리스토타레스는 개별의 형상을 이데아로 제시한다. 꽃을 예로 들어보면, 플라톤의 경우는 모든 꽃은 하나의 이데아(형상)에서 비롯되지만, 아리스토타레스의 경우는 개별꽃들(개나리, 장미, 목련 등)은 하나하나의 이데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다.

10)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은 젊은 철학자들의 모임인 ‘형이상학 동인회(Metaphysical Club)’에서 출발한다. 그 구성원은 와너(J. Warner), 그린(N. St. Green), 화이트(C. Wright), 홈스(O. W. Holms), 피시케(Jr. J. Fsike), 아보트(F. E. Abbot), 퍼스(C. S. Peirce), 제임스(W. James)였다. 프래그머티즘은 이들 중에 퍼스가 형이상학동인회의 의견이나 사상을 종합하여 당시 저명한 출판업자인 W. H. Appleton으로부터 집필을 요구받아 통속학술월보(popular science monthly magazine) 1877년 11월호에 “신념의 고정화(固定化, the fixation of belief)”와 1878년 1월호에 “나의 관념을 어떻게 명료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된 2개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공개되었다(오병문, p. 21; 김기수, 2008, p. 7).

11) 듀이는 그의 철학에서 형이상학적 논의를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에서 직접적이고도 상세하게 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듀이는 그의 후기철학인 1934년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예술철학을 출간한다. 이전의 그의 철학을 예술로 논의하며 그의 경험철학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전의 사회철학, 교육철학, 심리학 등의

의 가치화는 궁극적으로 초자연적인 관념의 음악 세계로부터가 아니라 삶과 연속성을 지닌 하나의 음악 미적 경험에 있다고 제안한다.

음악은 필수적으로 자연과 인간 삶의 보다 지속적인 배경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인 충격, 불안정, 갈등과 해결을 집중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긴장과 고투는 소리 에너지들의 집합, 방출, 공격과 방어를 가지는 것으로, 즉 강력한 전쟁과 평화로운 만남, 긴장과 완화를 지닌다. 이러한 것들이 곧 음악의 웹(web)을 엮는다 (Dewey, 1958, p. 236; 김기수, 2008, pp. 72-73).

그런 만큼, 이 철학은 음악이 곧 유기체성의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의 반영한 매개(medium)로 간주하며, 음악교육에서 다루는 음악의 진리와 인식, 그리고 가치를 자연 속의 삶과의 연속성 가운데서 찾으려는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3. 현행 음악교육철학의 양상

1) 리머의 심미주의

리머는 1970년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을 출간하면서 음악교육철학을 주창하였다. 그는 음악교육의 철학적 논의의 기초를 듀이, 랭거(S. K. Langer), 마이어(L. B. Meyer) 등의 견해에 두고, 톨스토이(L. N. Tolstoy), 칼 융(C. G. Jung) 등과 같은 철학자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거론한다. 특히, 그는 “음악교육은 심미적 교육이어야 하며, 그것은 ‘느낌의 연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홍수, 1990, p. 62)고 주장한다. 곧 음악의 미적 경험을 위한 느낌의 연습 및 발견을 강조하는 심미적 음악교육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음악교육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음악교육철학의 필요성, 예술의 견해, 예술과 감정, 미적 의미 및 경험 등을 논의하며 음악 그 자체의

성격을 지니는 철학을 예술철학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결코 그의 철학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철학을 그의 철학의 정점에 놓으며 그의 철학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악교육학에서 소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실용주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1916년에 출간된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의 내용의 소개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 만큼, 실용주의 음악교육철학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을 위해서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험을 강조하며 음악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리머에게서 심미적 경험이란 “음악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하여 발생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고, 설명될 수 없는 경험이며, 다른 상징 매체로 대체될 수 없는 경험으로, 음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경험이고, 음악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비로소 공유하게 되는 경험을 일컫는다”(권덕원 외, p. 80)로 대변된다. 이러한 리머의 철학은 우리나라 제 6차(1992년)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결국, 리머 철학의 핵심은 ‘음악 그 자체의 경험’과 ‘느낌의 연습’으로서의 음악 심미적 경험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음악경험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음악 상상의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음악의 의미는 고정되거나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때마다 의미가 새롭게 발현되어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어떤 하나의 음악경험은 이후의 만남의 사건에서는 새로운 다른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의 경험이 더 강화될 수도 있거나, 혹은 앞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이로써 음악의 미적 경험과 의미는 계속 확장되고 발전하며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음악경험은 인간적 삶을 초월하는, 곧 지력으로 증명 불가능한 미적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리머의 철학은 일면의 이상주의 및 실재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누구나 음악의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는, 곧 소위 엘리트즘(elitism)을 배격하는 음악 그 자체의 ‘느낌의 교육’을 강조하는 심미주의 음악교육철학으로 귀결되고 있다.

2) 엘리엇의 실천주의

엘리엇은 그의 저서 *Music Matters*(1995)를 통해서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을 비판하는 새로운 음악교육철학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음악하기(musicing)’, ‘맥락(context)’ 등이 강조되었다. 즉 음악적 상황의 맥락과 음악행위를 담은 ‘praxis’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 내용은 리머가 주장한 심미주의 음악교육철학에서 강조되는 ‘관조’와 ‘느낌의 연습’을 비판한 새로운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 철학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의식으로부터 음악적 행위가 일어나고, 인간 정신의 다양한 유형과 관점들은 의미 있는 음악경험의 세계를 만들어간다고 제시하였다. 곧 음악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인간 정신의 다양한 유형과 관점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음악적 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회로에락 등의 요구와 만족,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필요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인간의 사고과정과 정신세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인간의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민경훈 외, p. 62).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음악을 정관(靜觀)의 대상으로 삼은 느낌 중심의 음악의 미적 경험이 아니라 음악을 생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의 내적 사고와 정신 작용 등의 음악행위, 즉 음악적 사고 자체, 음악적 아이디어, 음악 만드는 행위, 표현하는 행위, 감상하는 행위, 음악적 맥락 및 아이디어 등의 ‘음악하기’를 중시한다. 이러한 엘리엇의 철학은 우리나라 제 7차(1997)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결국, 엘리엇의 철학에서 강조되는 것은 ‘음악하기’ 및 ‘맥락(상황)’ 등의 실제적인 음악의 참여이다. 음악경험과 의미는 관조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 또는 경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경험 및 의미는 음악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상황적 맥락에서 형성됨을 강조한다. 그런 만큼, 엘리엇의 철학은 음악 그 자체의 어떤 관조보다는 음악의 상황적 맥락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참여의 행위를 강조하는 실천주의 음악교육철학으로 귀결되고 있다.

Ⅲ. 철학적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철학적 태도

1. 다양한 철학적 시각과 세계관의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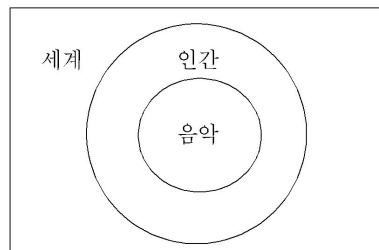
우선,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철학적 사유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철학적 시각과 세계관이 인정되어야 한다. 곧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독점화된 하나의 세계관이 융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4가지 철학이 여러 음악교육학 저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들 사조들이 맞고 틀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확대, 즉 음악교육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철학적 물음과 해답을 얻는데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로서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철학사에서 사조는 이 4가지 외에 다른 것들도 많지만, 적어도 아벨레스가 제시한 이 4가지 철학은 음악교육의 철학적 과제를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등의 철학적 영역을 고려해 볼 때,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반이 될 만한 관점과 내용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가늠된다.

음악교육의 철학적 사유의 범주는 ‘인간’, ‘음악’,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세계의 개념은 앞의 철학자들이 설정한 사유의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4가지 철학은 그 관점과 사유방식이 다를 뿐, 그것들이 다루는 인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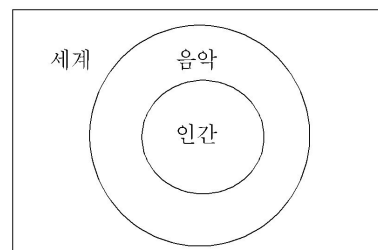
그들이 속한 세계, 그리고 인간이 향유하는 음악은 같은 것이다. 즉 같은 대상을 두고서 플라톤은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재, 그리고 자연주의에서는 자연(현상학적인 자연(가시적인 것) 및 형이상학적인 자연(자연의 기운 등의 비가시적인 것)) 등을 포함하는 대상, 실용주의에서는 삶과 연속성의 미적 경험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그들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철학적 방식으로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철학들은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세계관의 사유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가늠된다. 이러한 다양한 철학적 관점과 사유방식은 음악적 세계관 사고의 확대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음악은 익히 이성 및 신앙에 호소하는 형이상학적(비가시적)인 요소와 감각과 지성에 호소하는 현상학적(가시적)인 자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철학적 대상이다. 곧 음악은 가장 형이하학적인 감각세계로부터 가장 형이상학적인 종교에까지 모두 아우르는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미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또는 토대가 없이는 앞에서 거론한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재주의, 실용주의 철학적 관점에서의 음악교육 철학적 연구를 위한 철학적 세계의 범주화와 사유방식은 결코 확보될 수 없다.

본 연구는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해 철학적 사유가 학문적 진리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적 시각과 세계관의 인정이라는 사유로의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범주화의 도식(圖式)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그림 1] 인간 속의 음악



[그림 2] 음악 속의 인간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나는 사유방식을 좀 더 논의해 보면¹²⁾, [그림 1]의

12) 철학적 범주화에서 세계, 인간, 음악 3개의 대상에서 세계는 가장 큰 범주로 자리매김 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방식에서도 나머지 둘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만큼, 본고의 논의에서는 인간과 음악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범주화는 창의적인 사유방식을 전제로 한 도식이다.

철학적 범주화는 인간 속에 음악이 있다. 곧 모든 음악은 인간과 삶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철학적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인간이 음악의 범주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유이다. 이 관점은 인간이 음악을 지배한다는 인간 중심의 사유방식으로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자칫 음악을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곧 모든 음악은 인간에 종속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음악이 담고 있는 고유한 예술적 의미를 탐구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방식은 인간 중심의 교육관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음악 그 자체가 가진 고유한 미적 세계와 의미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음악교육의 본유의 가치인 음악의 미적 즐거움과 심미적 경험보다는 개인적 만족, 사회적 기여 및 행사 등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그림 2]의 철학적 범주화는 음악 속에 인간이 있다. 곧 음악 속에 인간의 감정과 삶의 모습 및 생활양식 등의 인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음악은 인간이 동경하거나 지향하는 선(善)의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경험은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하는 미적 상태를 만나게 하고, 이데아를 갈구하는 인간 영혼을 만족시키고 평안하게 하며, 그들의 심성과 몸을 이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음악을 너무 강조하면, 자칫 극단적인 예술지상주의(藝術至上主義)¹³⁾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즉 음악교육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 본유의 미적 본성을 일깨우고 그들의 음악적 성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음악의 미와 미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유에서는 인간의 고유한 개별적인 미적 감각과 판단보다는 음악 고유의 형식미와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절대적 음악의 미와 의미를 지향하려는 음악지상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각각의 철학적 현현은 지배적인 범주 또는 대상에 따라 결정되고, 표상에 드러난 사상은 여러 철학적 요소 중에 지배적으로 드러나거나 강조된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어떤 도식이 어떤 음악교육철학의 범주가 되는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철학을 그 정함의 재단(裁斷)을 한다면, 이러한 정함의 논의 역시 또 다른 논쟁과

13) 1830년대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예술이론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도 하며,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예술 자체 및 미(美)에 있으며, 도덕적·사회적 또는 그 밖의 모든 효용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과 무상성(無償性)을 강조하였다(두산백과 (2017). 예술지상주의. 접속일 12.05.20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655&cid=40942&categoryId=32856> 참고).

충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누구의 철학을 고정된 어떤 형태의 도식화로 귀결한다는 것은 학문적 연구에서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림 1]과 [그림 2]의 도식은 철학적 사유의 확대 및 세계관을 확장을 위해 제시했을 뿐이지, 어떤 철학은 이런 도식에, 다른 철학은 저런 도식에 얹어 넣으려는 재단이 결코 아니다. 바람직한 철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사실, 많은 철학적 오해와 오류 및 논쟁이 대부분 이러한 재단에서 발생한다. 그런 만큼,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과 연구의 확대를 위한 음악교육의 장(場)에서는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철학적 시각과 세계관의 인정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음악교육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주지한 것처럼, 음악교육철학은 음악교육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음악교육의 철학적 연구는 음악교육에서 철학의 필요성과 목적을 주요 과제로 삼아 오늘의 음악교육을 성찰하고, 미래의 음악교육의 방향과 목적 및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그 가치의 당위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어떤 철학적 사조나 견해가 음악교육 전체를 위한 제안으로서 하나의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철학적 발전은 음악교육 구성원의 각자의 철학적 사유방식에 기인한다. 곧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은 공동체적인 음악교육의 입장에서 아무리 어떤 철학의 관점과 세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더라도, 그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고민(사유)하려는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진정한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음악교육의 목적과 방향 및 내용과 방법, 그리고 가치의 당위성을 대한 끊임없는 물음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유하자면, 어떤 호수가 제대로 된 생명력을 갖춘 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여 있는 물의 호수가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들어 각양각색의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순환하는 물의 호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치와 같다.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재주의, 실용주의는 등은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등을 음악교육에 제공한다. 리머의 심미주의와 엘리엇의 실천주의 역시 나름대로의 독특한 철학적 세계관과 사유방식을 제공하여 음악교육의 과제를 철학적으로 다루며 현행의 음악교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록 그 관점과 내용은 다소 상

이한 면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철학적 관점과 사유방식은 음악교육의 방향과 목적 등과 관련한 음악교육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충분히 유의미하다. 그런 만큼,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철학적 태도는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혹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하는 식의 양자택일의 방식이 아니라, 그 철학의 관점과 사유방식의 어떤 내용이 현행 우리의 음악교육에 더 의미가 있는가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누구의 철학이 어떠하더라도 아니라 누구의 어떤 철학적 내용이 앞으로 우리의 음악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적, 그리고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역사가 항상 변화하며 흐른다는 우리의 공통된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제 아무리 훌륭한 그 어떤 철학도 변화하는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바람직한 음악교육 철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음악교육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철학적 시각과 세계관을 제공하여 그들의 독특한 철학적 관점과 사유방식으로 음악교육의 과제 및 실마리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 철학적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이 끊임없는 철학적 물음은 현행 음악교육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요구, 그리고 학교 실정과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한 해답을 찾게 하는 씨앗의 원동력이 된다. 곧 끊임없는 철학적 물음은 음악교육의 본질을 향한 음악교육의 방향과 목적 및 내용과 방법 등의 음악교육의 과제를 가장 적합한 어떤 철학적 관점과 견해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모토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음악적 경험과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

교육은, 어린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 발달 하도록 도와주고, 일상생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경험을 가지도록 이끌어주는 일이다. 온전한 성장 돕기란 학교가 제공하는 모든 경험과 학습 과정에서 감성과 오성을 충실하게 작용하게 하고, 더 나아가 온전한 상태로 길러지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필요하고 유용한 경험 제공하기란 개인적, 사회적 삶에서 가지는 다양한 문명적, 문화적 양상의 경험들 중에서 일상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고 필요하며 행복한 삶에 가장 유용한 경험들을 반드시 가지도록 의도적, 체계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뜻한다(이홍수, 2015, p. 5).

요컨대, 본 연구에서 음악교육철학의 필요성은 음악교육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과제와 실마리에 대해 끊임없는 물음으로 음악적 사고를 확대시키기 위함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런 만큼, 음악교육에서 철학적 연구는 철학 자체의 학문적 본연의 소임

에서 한 발짝 나아가 ‘음악교육의 철학’, ‘음악교육에 의한 철학’, ‘음악교육을 위한 철학’이라는 교육적 소임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학적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의 음악교육은 어떤 철학으로 다른 어떤 철학을 반박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R. Descartes)의 말처럼, 음악교육의 본질을 위한 과제와 해답을 찾는 끊임없는 물음으로 음악교육의 존재적 가치와 당위성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최선의 노력은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의 건설적인 철학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3. 스스로의 철학적 사유방식 습득

음악교육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하나의 철학은 어떤 시점과 상황에서 하나의 공동체적 인식의 지평으로 자리하지만,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비판적 시각에서 새로운 인식으로서의 다른 새로운 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만큼,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칸트의 말처럼, “스스로 생각하라, 스스로 탐구하라, 자기 발로 서라”라는 철학적 태도와 “철학을 배울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색(philosophieren, 思索)을 배우라”(최재희, p. 17)라는 철학적 태도가 요구된다. 즉 음악교육의 철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정된 어떤 하나의 철학적 관점이나 견해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음악교육 구성원 개개인이 음악교육의 과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찾으려는 태도, 곧 스스로의 철학적 사유방식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헨스키(Bocheński)는 “인간이 무언가를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만 있다. 하나는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즉 감각으로든 정신으로든, 직접 경험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추론을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앎의 형식인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지성의 활동이다”(p. 37)라고 제안된다. 곧 누구나 철학적 사색과 논의, 그리고 철학적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혜에 대한 앎 또는 사랑’이라는 철학의 의미처럼, 철학적 사색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스스로의 철학적 사유방식을 습득하려면 철학적 사유의 패턴을 연습해야 한다. 곧 철학적 사유를 위한 철학적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스스로의 철학적 사유방식의 습득을 위한 제안이다.

첫째, 인식에 대한 생각이다. 철학은 인식 가능한 전제조건과 그 한계를 탐구하는, 곧 인식 행위 자체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점에서 음악교육철학

은 음악을 매개로 하여 인식 행위 자체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곧 ‘음악교육이란 무엇인가’, ‘음악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악교육은 정말 가치로운가’ 등에 관한 인식 행위이다. 그런데 음악교육철학은 일반 철학이나 윤리와는 달리 음악에 대한 감성적 표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술은 인간이 세계와 정서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다”(이주영, p. 15)이기 때문이다. 정서는 감정의 발현으로서 원동력으로서 음악의 지각과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철학에서는 정서의 인식 범위와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적극 탐구해야 한다. 이 말은 음악교육철학은 전적으로 추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의 인식행위에서 시작하여 예술적 상상 및 감각을 초월하는 경험의 인식으로 발전하는 형이상학으로까지 발전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음악의 매개체는 분명히 감각적인 분명한 인식행위에서부터 일상경험을 초월하는 신비스런 예술적 지각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철학적 인식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사실, 음악은 원시적인 춤에서부터 거룩한 종교적 의식에까지 아우르는 매개 역할을 해 왔다. 그런 만큼, 음악교육의 철학적 사고는 감성적 표현뿐 아니라 감성적 수용까지도 포함한다.

예술은 높고 깊은 의미를 아름다운 매체와 방법으로 소통하는 일이며, 예술교과
는 예술작품으로 의미와 아름다움을 소통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술 생성과 활동의
기본과 원리를 공부하는 일이다. 그러한 경험과 공부가 사람에게 생활의 기본을
갖추게 하고 삶의 의미와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이홍수, 2015,
p. 6).

따라서 음악적 인식은 감각을 기초로 하는 경험의 바탕 위에 형이상학적 세계를 파악하는 이성애 이르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곧 음악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매체를 넘어 철학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철학적 대상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가치에 대한 생각이다. 음악교육의 철학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음악교육에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태껏 우리의 음악교육에서 철학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누구의 철학이 어떠하더라, 그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대부분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그다지 없었다. 그런 만큼, 무엇이 음악교육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실, 현행 음악교육철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리머와 엘리엇의 철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그들의 철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음악교육철학 연구는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고 하는 식의 양자택일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행 음악교육의 위기의 사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태도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의 고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음악교육의 실제에서 부딪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철학이 어떠하더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스스로가 철학적 사유이다. 곧 음악교육에서 만나는 사태와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적용하고,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등의 패턴을 가진 일련의 철학적 사유방식이다. 이런 사유의 패턴이 습관화될 때 스스로의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인간에 대한 생각이다. 철학 뿐 아니라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이다. 학문도 음악도 결국은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음악교육은 음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음악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음악경험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음악교육의 목적을 ‘음악적 성장’, ‘음악경험의 재구성’ 등으로 일컫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철학과 교육에서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은 20세기에 와서 더욱 증폭되었는데, 곧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교육에서는 구성주의이라 할 것이다. 음악이 인간의 산물인 만큼, 음악교육의 철학적 연구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생각, 곧 인간의 본성의 내적 요소와 외적 특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악의 미적 지각과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인간 본성이라 함은 선악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의 타고난 속성, 예를 들면, 음악과의 상호작용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의 측면, 곧 심리적 특성과 반응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세계관에서처럼, 음악이 인간을 포함하는가, 또는 인간이 음악을 포함하는 등의 의미도 지닐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 관련하여 인간이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발달 단계와 특징을 가지며 성장하는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음악의 미적 지각과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행의 음악교육에서 철학의 필요성과 목적이 음악교육 본질에 대한 탐구, 곧 ‘음악적 성장’과 ‘음악경험의 재구성’ 등의 공통된 과제로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스스로의 철학적 사유방식의 습득

은 음악교육에서 철학이 누구를 위한 철학이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IV. 맺음말

최근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양국 골프 국가대표 친선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패한 경기가 기사화 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본 연구가 함의하는 바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기에 소개한다.

“한국 선수들은 모두 비슷한 정통과 스윙을 했고, 다른 나라는 선수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할 정도로 개성 있는 스윙을 한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스윙 차이는 대표팀 육성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은 대한골프협회를 중심으로 주니어 상비군에서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유망주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육성된다.” 하지만, 상대 나라는 “대표팀에서도 게임 매니지먼트와 멘탈 트레이닝에 초점을 맞출 뿐 스윙은 각자에게 맡기는 편이라고 했다. ...[중략]... 그 나라는 지역마다 나름의 스윙 이론을 지닌 다양한 지도자가 선수들을 가르친다. 코치에 따라 선수마다 스윙의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곧 신체조건을 반영하여 키가 작은 선수들은 공을 치는 순간 왼발이 거의 들릴 정도로 ‘점프 스윙’을 한다. 한국 대표팀의 어떤 코치는 “한국 선수가 이런 스윙을 했다간 주니어 때 크게 혼나고 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요나고 (2017). 너무 다른 두 나라 스윙. 접속일 07.14.20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4/2017071400085.html).

비록 이 글이 기사화된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현행 우리의 음악교육 철학적 연구의 실태를 성찰하게 하고, 앞으로의 음악교육 철학적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태도를 갖도록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경험은 공통적인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들 역시 사유하는 세계와 인식방법에서 공통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철학적 사유는 그러한 연관성들을 개념화하고 분석하고 범주화 한 반성적 사고의 작용이다. 이러한 사고의 힘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데서 비롯된다. 그런 만큼, 음악교육의 철학적 연구의 장(場)은 철학 본연(지혜에 대한 사랑)이 지향하는 음악교육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 음악교육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면, 바람직한 음악교육을 위해 더 많이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2012). **음악교육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기수 (2008). 존 듀이 미적 경험의 음악 교육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_____ (2016). 존 듀이의 자연성과 프래그머티즘 음악교육. **음악교육연구**, 45(2), 1-20.
- 민경훈, 김신영, 김용희, 방금주, 송윤희, 양종모, 이연경, 임미경, 장기범, 조순이, 주대창, 현경실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소관수평 (1986). **서양철학사**. 서울: 동환출판사.
- 오병문 (1983). John Dewey 철학에 있어서의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주영 (2007). **예술론 특강**. 서울: 미술문화.
- 이흥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2009). '심미적 이성인의 사회' 구축에 기본이 되는 예술교육. **우관 이흥수 교수 정년기념문집**, 304-312.
- _____ (2015). 음악교과의 당위와 소임. **2015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3-15.
- 정순복 (1990). 존 듀이의 철학에서 '질성(Qualitativeness)'과 예술의 문제. **미학**, 15, 113-148.
- 주대창 (2014).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비판적 조망. **음악교육연구**, 43(2), 93-113.
- 최재희 (1990). **칸트의 생애와 철학**. 서울: 명문당.
- 김자광남 (1986). *Bertrand Russell 러셀의 철학과 사상*. 이동한 역, 서울: 문호사.
- 자안미지자 (1993). **슈타이너 학교의 음악교육**. 최시원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Abeles, H. F. (1984). *Foundation of Music Education*. New York: Schirmer Books.
- Allan, D. J. (1993).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해**. 장영란 역, 서울: 고려원.
- Bocheński, J. M. (2012). **철학적 사색으로의 길**. 김희상 역, 서울: 책읽는수요일.
- Crawford, D. W. (1995). **칸트 미학 이론**. 김문환 역, 서울: 서광사.

- Dewey, J. (1958). *Art as Experience*. New York: G. P. Putman's Sons.
- _____. *John Dewey: The Middle Works, 1899-1924: Volume 9: 1916(Democracy and Education)*, Edited by Jo Ann Boydst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6.
-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nslick, E. (1957). *The Beautiful in Music*. New York: Bobbs-Merrill Co.
- Hoffer, C. R. (1998). **음악교육론**.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acoste, J. (1995). **예술철학**. 김인환 역, 서울: 탐구당.
- Langer, S. K. (1993).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서울: 고려원.
- Magee, B. (2011). **철학의 역사**. 박은미 역, 서울: 시공사.
- Mark, M. L.(1992). **현대의 음악교육**. 이흥수 & 장기범 공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Reimer, B. (1970).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Prentice-Hall. Inc. A Simon & Schuster Compan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_____. (1989).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second ed., Prentice-Hall, Inc. A Simon & Schuster Compan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_____. (2010).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third ed.). Prentice-Hall, Inc. A Simon & Schuster Compan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요나고 (2017). 너무 다른 두 나라 스윙. 접속일 07.14.20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4/2017071400085.html
- 두산백과 (2017). 예술지상주의. 접속일 12.05.20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655&cid=40942&categoryId=32856>

ABSTRACT

**Suggest a Constructive Philosophical
Attitude for Philosophical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Kim, Gi-Su

Philosophical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has been coming from ancient Greece to now. Especially in the 1970s, the philosophical interests and research have increased greatly, it is developing into aestheticism and practicalism of current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nd various other philosophical aspects. The main task is to provide a clue and question about 'what is the essence of music education'. In addition to presenting the ultimate goal and direction of music education, this inquiry task has a great influence on determining and selecting contents and methods of music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briefly introduces major philosophical viewpoints and contents that serve as the philosophical basis of music education until now for philosophical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and suggests the constructive philosophical attitude for continuous philosophical development and research as 'recognition of various world view', 'constant inquiry about the essence of music education', and 'learning philosophical thinking method of oneself'.

Key words : music education philosophy, philosophical attitude, music education.

투고일: 2017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8년 1월 16일(1월 21일), 게재확정일: 2월 3일